

CJ제일제당 '햇반컵반 BIG' 팝업스토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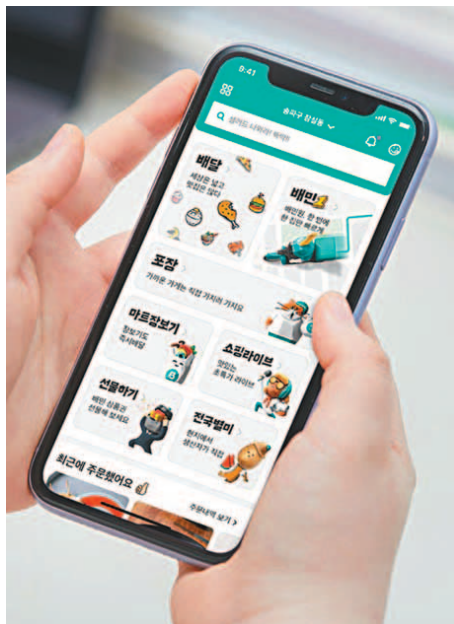
CJ제일제당이 27일까지 서울 성수동 스페이스 오매에서 '햇반컵반 BIG'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제품 출시와 함께 선보인 유튜브 콘텐츠 '영양정 컵반즈'를 테마로 했다. 담당 역할을 맡은 모델 나윤희와 함께 추리 미션을 풀어가는 내용이다. 포토존, 햇반컵반 브랜드존, 퀴즈존 등 2030 MZ세대를 겨냥한 체험 공간으로 꾸몄다.



확 바뀐 '배민 배달앱' 화제

음식 관련 서비스 한곳에... '푸드 슈퍼앱' 떴다

메뉴판 대신 이용목적 따라 탭 분류
단건배달 도입으로 쿠팡이츠 견제
요기요 매각 등 배달 앱 시장 요동



11년 만에 전면 개편한 '배달의 민족' 앱 홈화면. 여러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푸드 슈퍼 앱'을 지향한다. 사진제공 | 우아한형제들

●달라진 홈화면...배달 앱 시장 경쟁 대비

우아한형제들은 8일 배민 홈 화면을 바꿨다. 새 버전은 '푸드 슈퍼 앱'을 지향한다. 슈퍼 앱은 여러 서비스를 별도 다운로드 없이 한 곳에서 모아 쓸 수 있는 앱을 말한다.

그동안 배민 메인 화면이 한식·분식·치킨·피자·중국집·디저트 등 음식 종류

가 나열된 메뉴판식이었던, 새 화면은 단건배달, 포장, 마트장보기, 쇼퍼라이브, 선물하기 등 음식 관련 주요 서비스를 개별 탭으로 분류했다.

고객들은 앱 이용 목적에 따라 음식을 주문할지,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구매할지, 선물하기로 배민상품권을 보

낼지, 전국 각지 유명 음식을 주문할지 등을 첫 화면에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

배민의 이런 변화는 이 달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는 국내 배달 앱 시장 경쟁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보인다. 6월에는 먼저 매각을 추진 중인 배달 앱 2위 서비스 '요기요'의 본입찰이 17일 경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12월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인수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뒤인 지난해 12월 DH에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현재 SSG닷컴과 M BK파트너스 등이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DH는 운영 중인 또 다른 배달 앱 '배달통' 서비스를 이달 24일 종료한다. 배달통은 2010년 출시된 국내 최초 배달 앱으로, 2014년 DH에 인수됐다.

새로운 주자들도 떠오르고 있다. 쿠팡의 쿠팡이츠와 위메프의 위메프오 등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 3자 경쟁에서 배민과

쿠팡이츠, 위메프오, 그리고 요기요를 인수하는 주체 간 경쟁 구도로 바뀔 전망이다.

●'한 번에 한 건' 너도나도 단건배달

새롭게 재편되는 배달 앱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쟁 포인트는 '단건배달'이다. 배달 기사가 한 번에 한 건의 배달만 처리하는 것으로, 빠르다는 강점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쿠팡이츠다. 쿠팡이츠는 단건배달을 무기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 3구에서 배민을 제쳤다라는 관측이 나왔다.

배민도 반격에 나섰다. 8일부터 단건배달 '배민1'의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개편된 배민의 새 화면에는 맨 상단에 '배달'과 '배민1' 버튼이 나란히 배치됐다. 서울 송파구 지역에 먼저 도입한 뒤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위메프오도 단건배달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L K ICT와 주문 및 라이더를 1 대 1로 매칭하는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점점 늘어나는 '확찐자'...비만합병증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보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신체활동 및 운동량이 부족해 급격한 체중 증가를 겪은 사람들을 요즘 '확찐자'라고 부른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3이상이면 과체중, 25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정의한다. 비만인 신체에 저장된 지방 성분은 혈장으로부터 유입된 지방산, 그리고 포도당이 에스테르화되어 나타난 중성지방이 대부분이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시한폭탄과 같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고지혈증 등의 대사후증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비만으로 나타나는 신체 전반적인 만성 염증 상태는 경계할 대상이다. 과식과 과음, 흡연과 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으로 저장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대사가 원활치 못하면 지방 성분들의 혈중 수치가 과도하게 상승한다.

높은 수치의 지방성분이 혈중에 유지되는 상태를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한다. 지방 수치가 올라간 혈액이 혈관을 흐르면서 지방 성분들이 혈관벽에 달라붙거나 쌓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이외 비만에 의한 합병증으로 지방간, 비알콜성 지방간염, 심장병, 수면무호흡증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여기에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질환 등도 비만과 연관된 질병으로 전해진다.

BMI 35 이상의 고도비만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고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체중조절이 어렵다면 내과에서 정밀상담을 받은 후 개인별 맞춤 비만치료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천 내과 성모해민내과 이혜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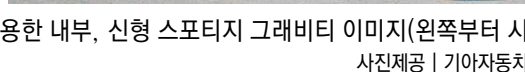


베일 벗은 기아 5세대 스포티지...“더 세련된 미래지향적 외관”

6년만의풀체인자...디자인 최초 공개
전면 타이거 노즈 그릴, 역동감 더해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래비티'도 선보



새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표현한 5세대 스포티지 외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내부, 신형 스포티지 그래비티 이미지(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기아가 6년 만에 풀체인지된 5세대 스포티지의 내·외장 디자인을 8일 최초로 공개했다.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역시, 디자인 기아'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혁신적이다. 블랙 컬러의 테크니컬 패턴을 적용한 대형 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 역 C자 모양의 주간주행등이 기아의 새 엠블럼과 어우러져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전기차 EV6에 이어 5세대 스포티지에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표현했다.

측면부는 스포티한 바디 실루엣에 입체

적인 볼륨을 더해 전체적으로 역동감이 느껴지고, 후면은 스포티하고 와이드한 숄더 디자인에 좌우로 연결된 수평형 가니쉬와 날렵한 리어램프를 적용해 강인하면서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블랙 리어램프에 적용된 독창적인 디자인의 스킴드 플레이트도 인상적이다.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도 함께 공개했다. 더욱 볼륨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한층 단단한 디자인의 전·후면 범퍼, 블랙 유광의 도어 가니쉬, 새로운 루프랙 디자인 등을 통해 차별화했다.

실내에는 12.3인치 계기반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부드럽게 곡

면으로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국내 준중형 SUV 최초로 적용해 차별화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기능을 통합해 조작할 수 있는 터치 방식의 전환 조작계를 적용해 최신형 전자기기와 같은 혁신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제주드림타워, 외국인 카지노 11일 오픈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를 표방한 제주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외국인전용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사진)를 11일 오픈한다.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제주 랜딩카지노에 이어 3번째로 오픈하는 복합리조트 카지노다. 영업장 면적 5367㎡에 141대의 게임테이블과 슬롯머신 190대, 전자테이블게임 71대와 ETG 마스터테이블 7대 등 총 409대의 게임시설을 갖추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서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를 통해 2022년부터 5년간 14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 해 500억원 수준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제출하겠다는 플랜을 밝혔다.

KT&G, 법무부에 취약계층 사회정착 기부금 전달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왼쪽)과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KT&G(사장 백복인)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치료감호환자의 원예치료 등 사회정착후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1억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7일 KT&G 서울사옥에서 진행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복역을 마친 출소자와 보호관찰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 개보수와 자녀 공부방 설치 등이 진행된다. 법무부 산하 입원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에서 수용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원예치료시설, 원예작물 재배지 등을 구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SKT, 서울시 'C-ITS' 실증 완료...상용화 본격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5G V2X로 교통상황 실시간 확인

SK텔레콤은 서울시내 차량과 보행자, 교통 인프라 등 모든 것을 5G로 연결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 실증사업을 6월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5G 기반 V2X(vehicle to everything)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중심으로 151km에 달하는 주요 도로 및 신호등에 1735개의 5G 센서를 부착하고 서울 시내 다양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왔다.

SK텔레콤은 또 서울시와 함께 도로, 신호등 외에도 차량과 교통 인프라 간 V2X 실증사업을 위해 시내버스 1600대와 택시 100대에 5G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와 전용 단말 등을 설치해 운



5G ADAS와 전용 단말을 갖춘 커넥티드 버스의 주행 모습. 사진제공 | SK텔레콤

영 중이다. 5G ADAS는 차선 이탈방지경보, 전방 충돌 방지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C-ITS 실증사업에 대한 성과를 12일까지 상암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소개하고, 구축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커넥티드 버스와 자율주행차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SK텔레콤과 서울시는 C-ITS를 통해 확보한 교통신호 및 안전정보를 민간 내비게이션 제공 업체들에게 5G로 제공하고, 이들 업체들은 해당 정보를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해당 플랫폼은 2022년 내 완성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